

<벼랑 끝에 선 이스라엘> - 사 7:1-8

한 줄 요약 :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거다.

1. 결전을 앞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을 중심으로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과의 결전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135,000명에 달하는 대군인 데다가 낙타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기드온을 따르는 네 지파에서 징병 된 보병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적들에 비해 우월한 병장기나 뚜렷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열세 중의 열세였습니다.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따르는 군사의 수가 많으니, 일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에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만 전쟁 참여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았고, 군대의 규모가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군인의 수를 줄이셨을까요? 이들이 교만하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라고 우쭐거리며 교만에 빠져 착각할까 봐, 병력의 수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1/3로 줄어들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으로 줄여버리십니다. 처음에는 군인 한 명이 적군 5명을 상대해야 했지만, 한 명이 적을 14명을 상대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여도, 결코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치시고자 기드온의 군대를 축소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굳게 믿으

시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의 최후> - 삿 16:23-31

한 줄 요약 :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는 삶을 살자!

1. 삼손의 비참한 말년

블레셋 사람들의 공공의 적, 삼손이 그들의 손에 의해 생포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종교적 축제를 열어 이를 기념하고자 다곤의 신당에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곡물의 신이라고 불리는 다곤이 자신들의 손에 삼손을 넘겨주었다고 크게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삼손이 누구입니까?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30명을 쳐 죽이고, 여우 300을 붙잡고 홀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3,000명의 블레셋 사람에 둘러싸여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 재주를 부리고 있는 광대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해야 할 자가 블레셋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 비참하고 처량한 상태입니다. 기둥에 기댄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물을 달라 기도한 이후, 일생 두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결코 긴 머리카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비로소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만약 삼손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삼손이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자기중심적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기도한 겁니다.

비록 삼손이 자기중심적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모인 자들을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2.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은사를 받았지만, 그는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하지만,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비참한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왕> - 삿 21:15-25

한 줄 요약 :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자!

1. 무법천지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을 가리키는 말을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 제 뜻대로 살아서 굉장히 무질서하고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소멸할까 봐 염려한 나머지 11개 이스라엘 지파가 계책을 마련하는데, 그것은 바로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과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여 베냐민 자손들에게 아내로 주는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야비하고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사실 한 지파가 사라질 것이 염려되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율법으로나 세상의 법으로나 아주 문란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여기지 않았기에, 자기들 소견대로 한 결과 죄를 범한 것이죠. 이는 이 당시 너무나도 비참한 영적 상태를 잘 나타냅니다.

2.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여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해야 할 길> - 에 4:13-17

한 줄 요약 :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무엇이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1. 목숨을 걸어야 할 일

하만이 만든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모르드개는 자기 죽음과 백성의 죽음을 생각하며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굼은 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썼습니다. 그리고 하닥을 통해 자신의 사촌 여동생이자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처음에는 선뜻 이 일에 나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명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야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다가 자칫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왕에게 나가라고 촉구합니다.

이 조서에 따르면 에스더도 유대인이기에 처형되어야 하고, 결국 민족을 위해 나선 이 길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바사 제국 왕궁에 보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이 일에 침묵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가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왕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모르드개에게, 자신과 이 일을 위해 3일간 금식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 먼저 해야 할 일

절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들은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함에도 다른 방식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 이 일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게 찾아온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기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문헌>

1. HOW 주석
2. 엑스포지멘터리
3. Lexham 성경사전
4. 매일성경전집
5. QA시스템 성경연구
6. BKC